

지체부자유학교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남미자¹ · 조길호²

¹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²경북대학교 통계학과

접수 2011년 6월 26일, 수정 2011년 7월 26일, 게재확정 2011년 8월 1일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지체부자유학교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보호자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분석하여 지체부자유 학생을 위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방과 후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용어: 방과 후 교육과정, 방과 후 학교, 지체부자유학교.

1. 서론

제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창의성이 풍부하고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능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양적 교육과정이 아닌 질적 교육과정,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 분리주의가 아닌 통합주의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었다. 지체부자유학교 초등부의 교육목표는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르고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 넓은 학습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지는 것이다. 특히 일상적인 운동 및 동작 활동을 통하여 신체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장애 극복 의지를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교육과정은 학교 방과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서 방과 후 학생들의 생활과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방과 후 교육과정은 자녀양육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85년 ‘여성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1995년에는 방과 후 아동지도 교육 프로그램 모형 시안을 발표하였고, 1997년 아동학회에서는 ‘방과 후 아동지도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여 학령기 아동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 대상 아동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과정은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소외계층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선도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장애학생의 전일제교육과 보호에 의한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과 후 교육과정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¹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

² 교신저자: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E-mail: khcho@knu.ac.kr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아동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하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남미자와 조길호, 2010; 변해숙, 2001; 이성란, 2004; Cho 등, 2008).

중복·지체부자유 학생들은 중도의 장애와 사지와 체간의 부자유로 인하여 이동과 자립의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 역시 방과 후 가정이나 학교에서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다. 단순한 보호차원의 아동 관리가 아니라 컴퓨터 활동, 다양한 치료교육활동 등 아동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고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부자유학교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보호자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분석하여 지체부자유 학생을 위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방과 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체부자유학교 교육과정 성격

일반적으로 지체부자유아는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일상생활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으로 정의된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지체부자유아라 하면 척수성 소아마비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오늘날에는 뇌성마비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지체부자유학생을 위한 지체부자유학교 교육과정은 70년대 소아마비 아동을 주축으로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80년대로 오면서 운동장애 외에 감각, 지각, 지능, 시각, 언어 등 다양한 장애를 수반한 뇌성마비아동의 증가로 교육과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증점은 첫째,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계승 유지, 자기 주도적 학습강조,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둘째,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으로 학생을 위한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설정으로 개별화 교육과정의 운영이 강조되었다. 셋째, 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른 치료 교육 활동의 탄력적 운영을 하고 넷째, 미래 사회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이 강조되었다.

2.2. 방과 후 학교 개념 및 유형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방과 후 아동지도를 학교정규수업 활동 이외에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보는 관점이다. 학교 방과 후의 특별활동이나 스카우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취미, 예술, 스포츠 등의 레저활동과 각종 캠프 및 학원 등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모두를 의미한다. 협의의 개념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성인들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학령기 아동들이 허가를 받은 정기간에서 정기적으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공부방,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지도 등이 포함된다.

방과 후 아동지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과 후 아동지도는 아동들이 학교가 파한 후, 방학 중, 학교 시작 전, 휴일 등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며, 올바른 생활습관 및 학습습관의 형성을 통해 학업성취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나아가 아동의 부모 및 가족 전체의 안정되고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는데 있다. 즉, 궁극적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후 학생들이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기 일을 스스로 행하고, 공동생활에 적응하며,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민주시민이 되게 하는데 있다.

2.3. 방과 후 학교 아동지도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방과 후 아동지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취업 모 자녀를 포함하며, 방과 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 둘째,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생활지도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며,
- 셋째, 학업성취 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넷째,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 다섯째, 아동의 건전한 놀이지도와 여가선용을 도모하며,
- 여섯째, 아동들에게 선악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웃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며,
- 일곱째, 예절교육,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며,
- 여덟째, 기본생활교육, 개별화교육, 놀이중심교육을 시키고,
- 아홉째, 또래집단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목적이 충족되어야 진정한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목적 이전의 선행조건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과 후 아동지도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고 학습과제 수행을 보조하며 아동이 속한 사회에서 건강한 일원으로 자랄 수 있게 긍정적인 사회, 정서 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아동·가족·지역사회가 행복해 질 수 있게 원조해 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방과 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주장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다. 영유아보육법이 1996년 1월 시행규칙 개정령을 선포하여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탁아가 학령기의 아동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게 되면서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발달적 요구에 따라 방과 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과거와 달리 2차 성징이 이 시기의 후반기, 즉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 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바른 태도와 성폭력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이 시기에는 지적인 발달이 활발히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 하는데 학교 교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개별적인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바른 학습태도와 자신감을 형성 하도록 한다.

셋째, 또래 아동과의 상호작용이다. 방과 후 집에서 홀로 TV를 보거나 컴퓨터 오락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넷째, 서로 다른 개성을 인정하여 스스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된다.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므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출산저하로 인하여 가정에서 혼자 지내는 학생들이 많은데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사회생활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는 위와 같이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호자에게도 필요하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방과 후 학생들이 가정에서 TV 시청을 과도하게 하거나 컴퓨터 오락이나 음란물 등 정신건강에 좋지 못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방과 후 학교를 하면서 이러한 위험한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맞벌이뿐만 아니라 전업 주부라 할지라도 여가생활이나 기타 사회활동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정 형편을 지닌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일반아동에 비해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 적응, 사회생활 기숙, 직업생활 등 습득해야 할 내용이 더욱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은 더욱 절실하다 (오

혜경, 1999).

지체부자유학생에 있어서 방과 후 학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인규, 2001).

첫째, 지체부자유학생들은 취학 이전에 물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교육을 받다가 취학하게 된 후로는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의 치료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중단할 필요가 없다.

둘째, 지체부자유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방과 후 사회복지관이나 사설 학원에 다니게 되면 다른 영역의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지체부자유학생들이 지니는 심리를 고려한 접근이 가능하다.

셋째, 다른 장애 영역과 구별되게 지체부자유학생들은 신변자립이 매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가 늘 함께 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자녀와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사회생활과 자아실현, 기타 생계적 수단으로 직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자녀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면서 안심하고 사회생활이나 기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과도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등 부모님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뢰할 만한 공교육기관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과 후 학교는 지체부자유학생 뿐만 아니라 그 부모나 가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체부자유학교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방과 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의 지체부자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확률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1년 3월에 100부를 발송하고, 약 1개월 동안 조사하였으며, 무응답에 대해서는 2차, 3차에 걸쳐 전화로 독촉하여 회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그 중 회수되지 않거나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6부를 제외하고 회수된 84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자녀의 장애정도, 경제적 수준, 학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요 인	구 분	도수	백분위(%)
자녀의 장애정도	경도	14	17
	중등도	26	31
	중도	44	52
	상	10	12
경제적 수준	중	51	61
	하	23	27
학년별	초등부	60	71
	중고등부	24	29

3.2. 자료의 통계분석

각 설문지의 문항은 표 3.2와 같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표 3.2 설문지의 문항 구성 및 내용

영역	질문 내용	문항 수
보호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실문작성자, 경제적 수준	2
학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자녀의 성별, 소속, 연령, 장애정도	4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여부	3
	프로그램의 내용	3
	프로그램 이용 후 자녀의 변화 정도	3
방과 후 교육과정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 사항	반 구성	3
	적절한 수업 이용시간	3
	방학 중 프로그램의 필요 여부	3
전체 문항 수		12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목적을 규명하고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 각 문항의 분석은 반응의 빈도와 백분위(%)를 구하고, 비교 구분 간 차이는 카이제곱 검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처리를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MINITAB 14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4. 결론

4.1. 지체부자유학교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4.1.1.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참여

지체부자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재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참여

요인	구분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지 않다	χ^2 값 (p값)
자녀의 장애정도	경도	9 (64%)	5 (36%)	4.342 (-0.114)
	중등도	21 (81%)	5 (19%)	
	중도	39 (89%)	5 (11%)	
경제적 수준	상	8 (80%)	2 (20%)	1.826 (-0.401)
	중	40 (78%)	11 (22%)	
	하	21 (91%)	2 (9%)	
학년별	초등부	53 (88%)	7 (12%)	5.486* (-0.019)
	중고등부	16 (67%)	8 (33%)	
전체		69 (82%)	15 (18%)	

* : $p < 0.05$, ** : $p < 0.01$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82%이고,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나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인 자녀의 장애정도, 경제적 수준면에서는 구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초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보다 방과 후 교육과정 참여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4.1.2.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참여 이유

방과 후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주 내용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2와 같다.

인지 및 언어영역에 대한 응답이 30%, 예능영역은 22%, 치료영역은 26%로 나타나 자녀들은 방과 후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치료영역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예능영역, 인지 및 언어영역

표 4.2 방과 후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주 내용

요인	구분	인지 및 언어	예능	치료	χ^2 값 (p값)
자녀의 장애정도	경도	1 (11%)	4 (44%)	4 (44%)	6.485 (-0.166)
	중등도	8 (38%)	9 (43%)	4 (19%)	
	중도	12 (31%)	9 (23%)	18 (46%)	
경제적 수준	상	2 (25%)	4 (50%)	2 (25%)	4.705 (-0.319)
	중	11 (28%)	10 (25%)	19 (47%)	
	하	8 (38%)	8 (38%)	5 (24%)	
학년별	초등부	15 (28%)	18 (34%)	20 (38%)	0.651 (-0.722)
	중고등부	6 (37.5%)	4 (25%)	6 (37.5%)	
전체		21 (30%)	22 (32%)	26 (38%)	

* : p<0.05, ** : p<0.01

순이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인 자녀의 장애정도, 경제적 수준 및 학년별 면에서는 구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1.3.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참여 후 변화

방과 후 교육과정 프로그램 참여 후 지체부자유학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방과 후 교육과정 참여 후 변화

요인	구분	생활습관과 학습태도가 좋아짐	정서적으로 안정됨	변화가 없음	χ^2 값 (p값)
자녀의 장애정도	경도	2 (22%)	6 (67%)	1 (11%)	8.887 (-0.064)
	중등도	10 (48%)	5 (24%)	6 (29%)	
	중도	8 (20.5%)	15 (38.5%)	16 (41%)	
경제적 수준	상	1 (12.5%)	5 (62.5%)	2 (25%)	3.389 (-0.495)
	중	11 (27.5%)	14 (35%)	15 (37.5%)	
	하	8 (38%)	7 (33%)	6 (29%)	
학년별	초등부	16 (30%)	20 (38%)	17 (32%)	0.223 (-0.895)
	중고등부	4 (25%)	6 (37.5%)	6 (37.5%)	
전체		20 (29%)	26 (38%)	23 (33%)	

* : p<0.05, ** : p<0.01

생활습관과 학습태도가 좋아짐에 대한 응답은 29%, 정서적으로 안정됨은 38%, 변화가 없음은 3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활습관과 학습태도가 좋아짐과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응답이 67%로 이는 방과 후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인 자녀의 장애정도, 경제적 수준 및 학년별면에서는 구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2. 지체부자유학교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보호자 요구 사항

4.2.1.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의 반 구성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의 반 구성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나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바람직한 반 구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인 대답은 혼합연령이 58%로 동일학년의 42%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인 경제적 수준과 학년별면에서는 구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의 장애정도에서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자녀의 장애정도에 따라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의 반 구성 요구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4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의 반 구성

요인	구분	동일학년	혼합연령	χ^2 값 (p값)
자녀의 장애정도	경도	1 (7%)	13 (93%)	9.654** (-0.008)
	중등도	15 (58%)	11 (42%)	
	중도	19 (43%)	25 (57%)	
경제적 수준	상	3 (30%)	7 (70%)	4.902 (-0.086)
	중	18 (35%)	33 (65%)	
	하	14 (61%)	9 (39%)	
학년별	초등부	25 (42%)	35 (58%)	0.000 (1.000)
	중고등부	10 (42%)	14 (58%)	
전체		35 (42%)	49 (58%)	

* : p<0.05, ** : p<0.01

4.2.2.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한 이용시간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한 이용시간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한 이용시간

요인	구분	하교 후부터 오후3시까지	하교 후부터 오후6시까지	χ^2 값 (p값)
자녀의 장애정도	경도	3 (21%)	11 (79%)	2.581 (-0.275)
	중등도	10 (38.5%)	16 (61.5%)	
	중도	20 (45.5%)	24 (55.5%)	
경제적 수준	상	4 (40%)	6 (60%)	2.361 (-0.307)
	중	17 (33%)	34 (67%)	
	하	12 (52%)	11 (48%)	
학년별	초등부	29 (48%)	31 (52%)	7.207** (-0.007)
	중고등부	4 (17%)	20 (83%)	
전체		33 (39%)	51 (61%)	

* : p<0.05, ** : p<0.01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한 이용시간은 하교 후부터 오후 6시까지에 대한 응답이 61%로 하교 후부터 오후 3시까지에 대한 응답의 39%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인 자녀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에서는 구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별면에서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학년별에 따라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한 이용시간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2.3. 방학 중에도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방학 (여름, 겨울) 중에도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방학 중에도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2%,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인 자녀의 장애정도, 경제적 수준과 학년별면에서는 구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6 방학 중에도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요인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χ^2 값 (p값)
자녀의 장애정도	경도	7 (50%)	7 (50%)	0.174 (-0.917)
	중등도	13 (50%)	13 (50%)	
	중도	24 (54.5%)	20 (45.5%)	
경제적 수준	상	4 (40%)	6 (60%)	0.745 (-0.689)
	중	28 (55%)	23 (45%)	
	하	12 (52%)	11 (48%)	
학년별	초등부	34 (56.5%)	26 (43.5%)	1.546 (-0.214)
	중고등부	10 (42%)	14 (58%)	
전체		44 (52%)	40 (48%)	

* : p<0.05, ** : p<0.01

참고문헌

- 남미자, 조길호 (2010). 근 위축 증후 학생 보호자의 인식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1**, 1091-1100.
- 변해숙 (2001).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오혜경 (1999).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서울.
- 이성란 (2004). <정신지체아동의 방과 후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실태 및 부모의 요구 조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한인규 (2001). <장애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모형 개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Cho, K. H., Cho, J. S. and Nam, M. J. (2008). Effects on children's spatial ability of mathematical researching activity using traditional gam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9**, 505-510.

Study on after-school programs of disability schools

Mi Ja Nam¹ · Kil Ho Cho²

¹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²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26 June 2011, revised 26 July 2011, accepted 1 August 2011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true state of administration about after-school programs of disability schools, study the requests of the children' protectors, and support the basic materials to find the systematic and concrete after-school programs of disability schools.

Keywords: After-school, after-school program, disability school.

¹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Gyeongsan 712-714, Korea.

²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E-mail: khcho@knu.ac.kr